이차전지

Sector Issue Brief 2025. 10. 20

이차전지 이슈 점검: 9월 EV 판매량

Check Point

- 9월 판매량, 월별 최대 기록 뉴스
- 글로벌 EV 판매량과 한국 이차전지
- 10월이후 미국 역성장 가능성 증가

| Analyst **정경희** | khchung@ls-sec.co.kr

EV 9월 판매량

영국 시장조사 업체 로모션에 따르면 9월 글로벌 EV(BEV+PHEV)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약 210만대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 지역별로 보면 유럽 전년 동월비 36% 증가한 43만대, 미국 66% 증가한 22만대, 중국 28% 증가한 83만대 집계. 유럽은 보조금 혜택이 큰 저가형 보급형 신모델 출시 증가, 영국의 보조금 재개, 미국은 10월부터 폐기되는 세제 혜택에 앞선 선구매, 중국은 5분 내외 급속 충전을 선보인 BYD 등 BEV 선전이 주된 이유. 이와 함께 외국인 시장 유입에 따른 대형주 매수와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등에 힘입어 지난 주 셀 3사 KOSPI대비 15.3% Outperform

EV 판매량은 역성장을 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모수가 커짐에 따라 월간 판매량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 커. 1~9월 누적 기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1,470만대로 YoY +26%. 중국 900만대 +24%, 유럽 300만대 +32%, 북미 150만대 +11%, 기타 지역 120만대 +48%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북미 추세 이어져. 중국 진출이 낮은 한국 셀사의 경우 '24년 글로벌 비중 24%인 유럽과 10%인 북미 비중이 총 84%로 높아

유럽은 우호적인 정책 변화로 호조세 나타내고 있으나, 올해 한국 M/S 하락이 두드러진 지역. 관세 등 인위적 시장 장벽이 낮아 중국대비 낮은 가격 경쟁력 때문. 미국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있으나 보조금 정책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지역 시장 중 낮은 1~9월 누적 성장률 11% 기록. 9월 전년비 성장률 +50% 예상되나 이는 IRA Tax Credit 기간이 9월말로 확정된 선구매 영향 판단. 10월 이후 판매량 감소에 대비해야

결론적으로 9월 글로벌 전체 EV 판매량 data와 한국 이차전지 수요 성장률, 3분기 미국 시장 판매량 호조를 추세로 혼동 말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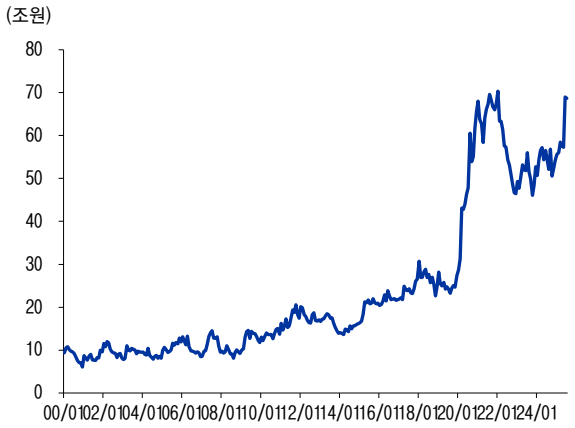
10월 이후 미국 EV 판매 역성장 가능성 증가

과거 미국 캘리포니아 태양광 보조금 정책(NEM) 변화 이후, 독일 '23년 연말 보조금 지급 정책 조기 종료 이후 '24년 역성장 시현. '24년 하반기 및 '25년 10월 세제 혜택으로 지원 정책 다시 강화 추세.

미국은 보조금 지급 기간인 '25년 1~6월 글로벌 주요 시장 중 전년비 8% 성장, 저조했던 지역. 3분기 OBBBA 발표에 따른 IRA Tax Credit 조기 일몰로 선구매로 QoQ +33%, YoY +33%로 높은 성장세 시현. 특히 9월은 YoY +50% 기록. 독일이 보조금 축소 정책을 일시에 발표, 진행한 것과 달리 이번 OBBBA 발표후 약 3개월의 선구매 기간이 부여된 점 상이. 따라서 4분기 이후 역성장은 독일 시장보다 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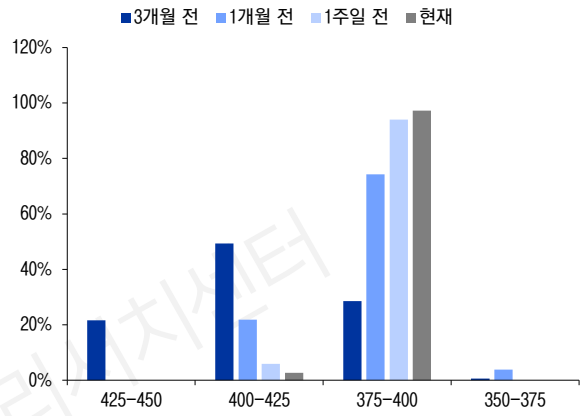
트럼프행정부의 구에너지 선호 정책으로 EV 정책 축소는 유지 가능성 높아. 이에 반해 미국내 국내사 CAPA 증가 및 유럽 판매 둔화로 미국 비중이 증가하는 한국 이차전지 산업에 부정적

그림1 국내 투자자 예탁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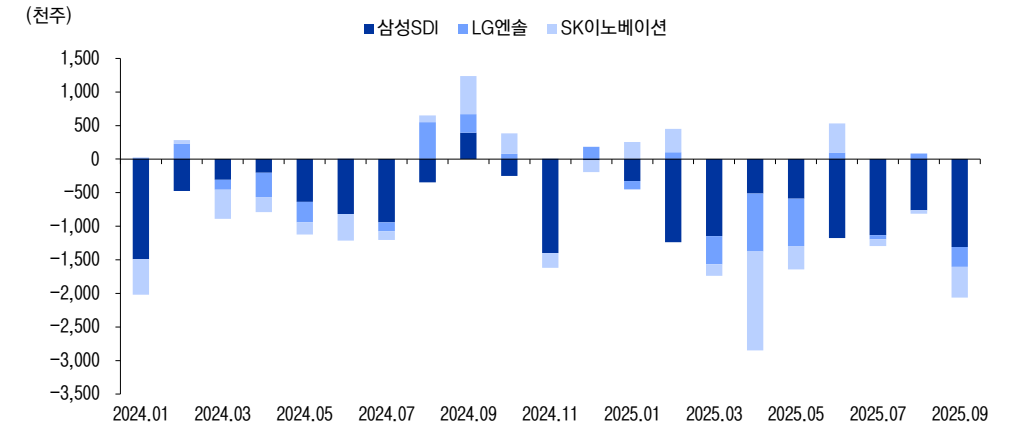
자료: ECOS, KRX,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10 월 미국 기준금리 확률: 25bps 인하 기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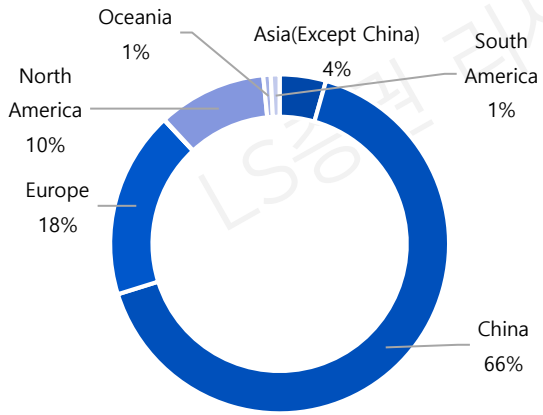
자료: ECOS, FRED,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한국 셀 3 사 합산 외국인 순매수량(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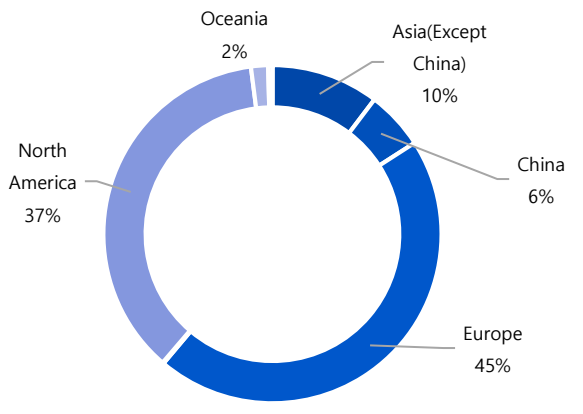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RX,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글로벌 EV(BEV+PHEV) 판매량 비중('24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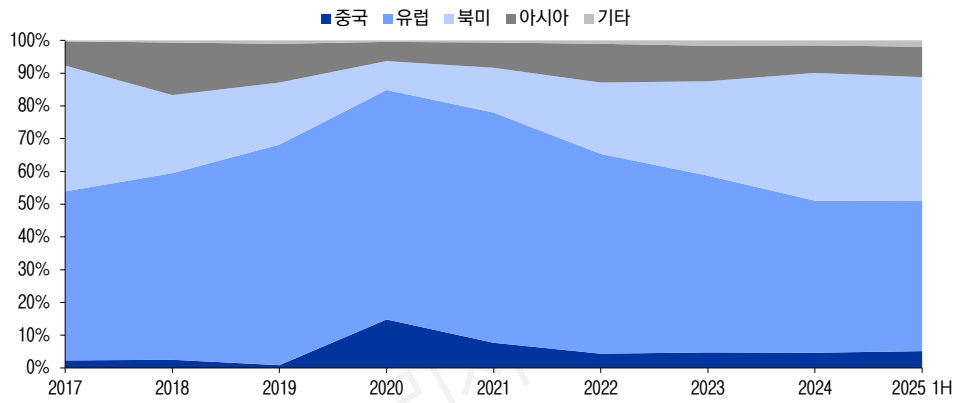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한국 셀 3 사 지역별 판매비중(2Q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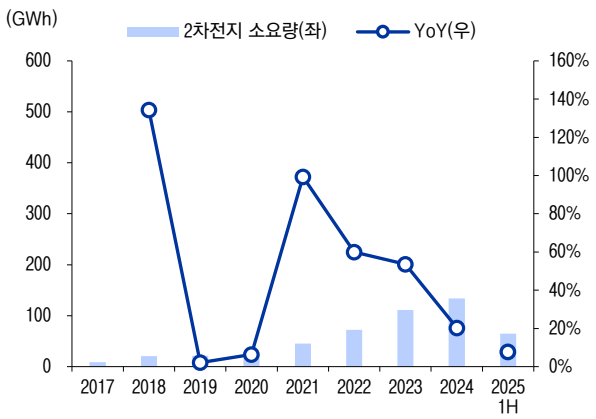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한국 셀 3 사 합산 지역별 판매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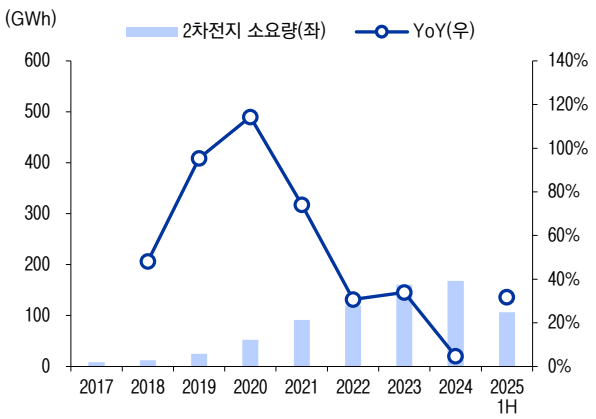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글로벌 EV 향 이차전지 소요량 성장률 추이(북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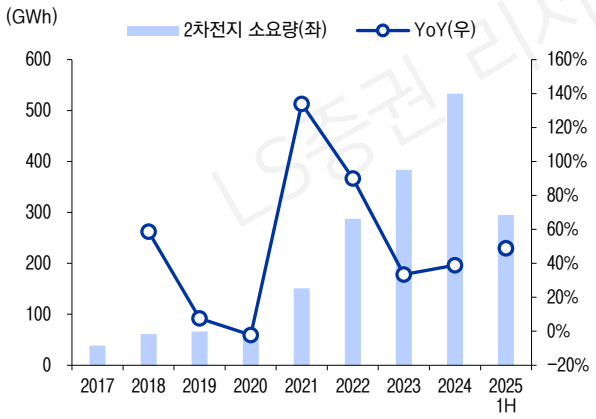
자료: 언론기사, LS증권 리서치센터
주: 배터리 가격 연평균 5% 하락 가정

그림8 글로벌 EV 향 이차전지 소요량 성장률 추이(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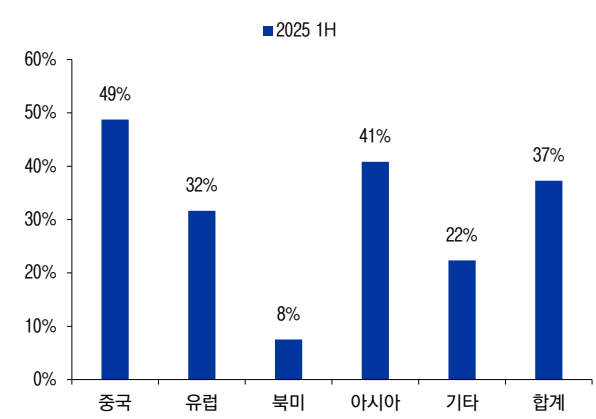
자료: 언론 기사,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글로벌 EV 향 이차전지 소요량 성장률 추이(중국)



자료: 언론기사, LS증권 리서치센터
주: 배터리 가격 연평균 5% 하락 가정

그림10 지역별 EV 향 이차전지 소요량 1H25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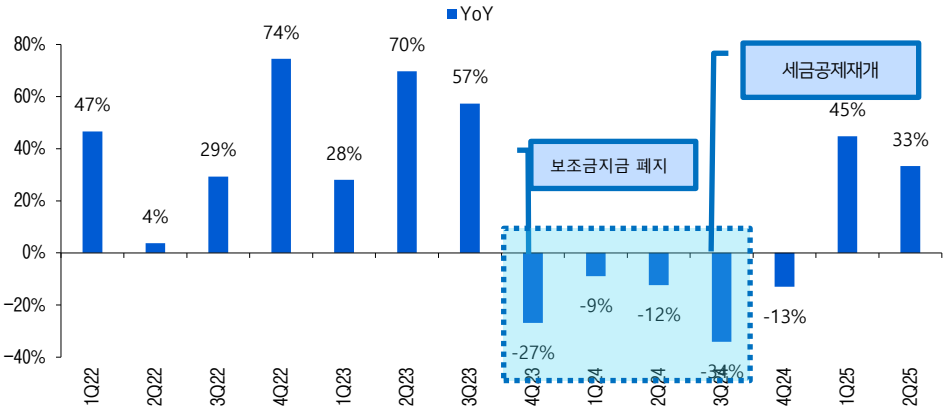


자료: 언론 기사, LS증권 리서치센터

표1 독일 EV 지원 정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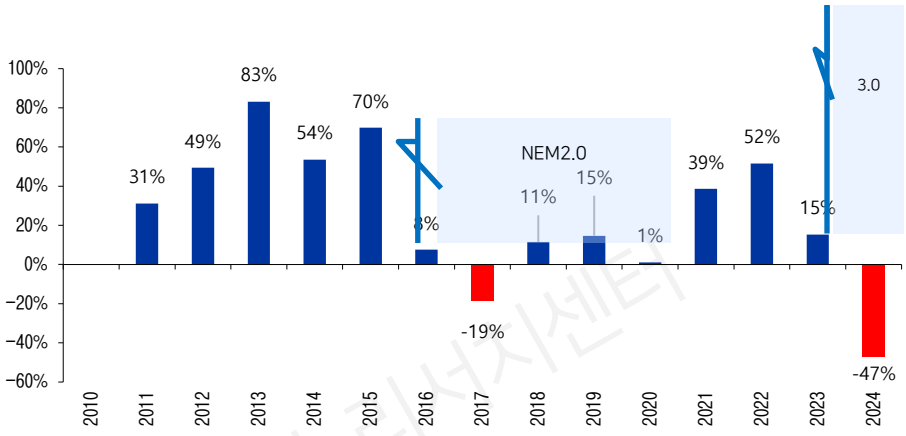
2016 년 4 월 발표 2016 년 7 월 적용	**환경보너스(Umweltbonus)** 순수전기차(EV), 연료전지차(FCEV) 및 PHEV 구매시 정부와 산업계(자동차 제조사)가 분담하여 보조금 지급 이는 현금 지급으로 직접적인 구매 보조금 '24 년 말까지 예정이었음	순수전기차: £4,000(정부:산업=50:50) PHEV: £3,000(정부:산업=50:50)
2020 년 6 월 발표 (연정위원회) 적용: ~21 년말	**혁신 보조금**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과 E-모빌리티 전환 가속화를 위해 기존 '환경 보조금'의 지급 규모를 두배 증액, 한시적 도입	출고가 4 만 유모 미만 순수 전기차: 최대 £9,000 유로(정부 지원금 증액) PHEV: 최대 £6,750 지원
2023 년 12 월 18 일 발표 17 일 적용	**환경보너스 단계적 축소 및 조기 중단** 전기차의 대중화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당초 '24 년 말까지 예정이었던 환경보너스 지급을 조기 중단 결정	독일 헌법재판소의 기금 사용 위헌 판결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당초 예정보다 1 년 일찍 보조금 혜택이 축소되었음
2024 년 9 월 발표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Tax Credit)** 재도입 전기차 판매 부진과 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혜택을 제재공하기로 함 이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이 아닌 구매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24 년 7 월부터 '28 년까지 5 년간 단계적 감소 도입 첫 해('24 년 7 월)에는 구매 비용의 40% 공제 예정. 이후 5 년간 단계적으로 감소하여 5 년째는 5% 공제 예정
2025 년 10 월 발표	**차량세 면제 연장** 전기차 시장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전기차에 대한 차량세 면제 혜택을 '35 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안 추진	PHEV 에 대한 정책 완화 의미 보조금과는 별개의 세제 혜택

그림11 독일 BEV 판매량 전년비 증감률 추이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캘리포니아 주택용 태양광 신규 설치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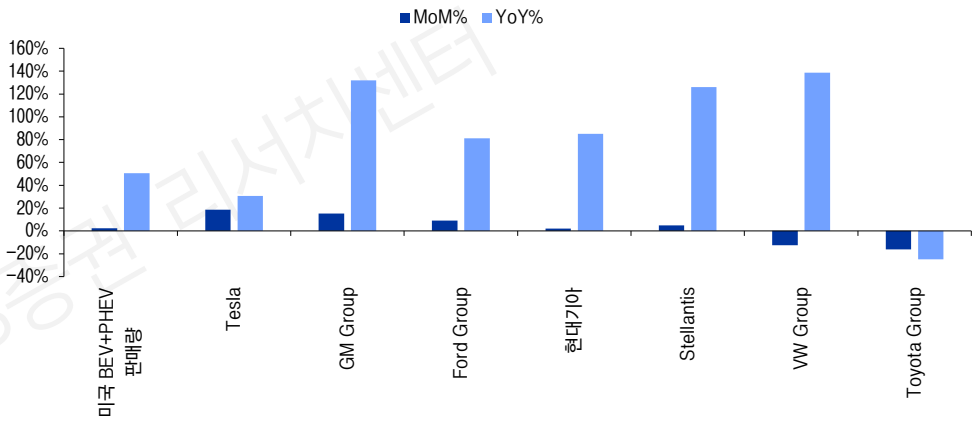
자료: 캘리포니아 공공요금 위원회(CPUS), LS증권 리서치센터

표2 OBBBA 에 의해 일몰 기한이 단축되거나 새롭게 일몰기한이 적용되는 세액 공제

Sec	세액 공제	현행세법상 일몰기한	개정세법 일몰기한
25C	Energy Efficient Home Improvement Credit	2032-12-31	2025-12-31
25D	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	2034-12-31	2025-12-31
25E	Previously-Owned Clean Vehicle Credit(중고 전기차)	2032-12-31	2025-09-30
30C	Alternative Fuel Vehicle Refueling Property Credit	2032-12-31	2026-06-30
45L	New Energy Efficient Home Credit	2032-12-31	2026-06-30
45W	Qualified Commercial Clean Vehicles Credit(상업용 전기차)	2032-12-31	2025-09-30
30D	Clean Vehicle Credit(전기차 신차)	2032-12-31	2025-09-30
179D	Energy Efficient Commercial Building Deduction	영구적 혜택	2026-0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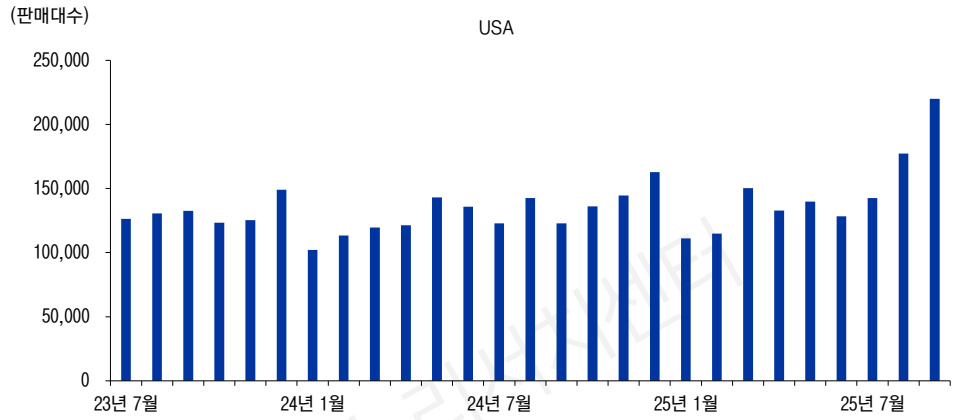
자료: OBBBA, 삼정KPMG Global Tax,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미국 BEV+PHEV 9 월 판매량 전월 및 전년 동월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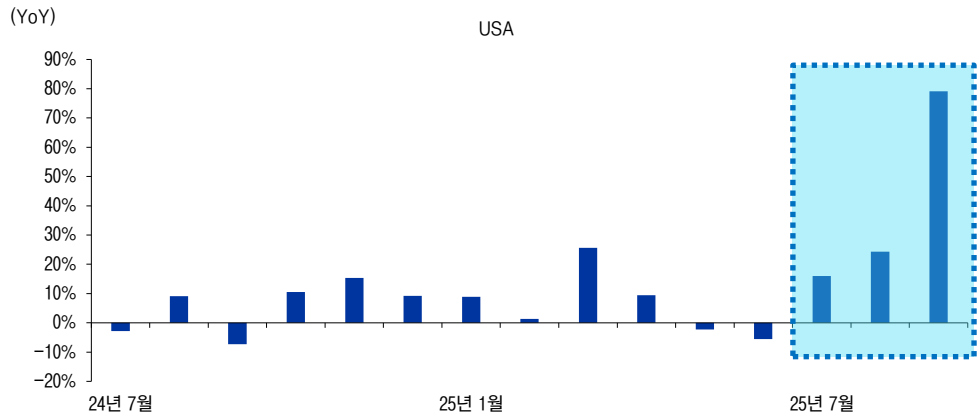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미국 BEV+PHEV 최근 2 년 월별 판매대수



자료: SNE 리서치, Marklines,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미국 BEV+PHEV 최근 2 년 월별 판매대수 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자료: SNE 리서치, Marklines,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정경희).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15% 이하 기대	89.4% 10.6%	2018 년 10 월 25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4. 10. 01 ~ 2025. 09.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